

성인여성의 의복가치관과 화장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lothing Value and Make-up Behavior of Women

최수경* · 강경자

마산대학 뷰티케어학부* · 경상대학교 의류학전공

Su Koung Choi* · Koung Ja Kang

Dept. of Beauty & Care, Masan College, Masan, Korea*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Abstract

The women selected by random sampling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y their body cathexis and Make-up attitude in order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Clothing Value and Make-up behavior. The result are as follows. Cluster was classified into four groups: positive congruity(G1), positive incongruity(G2), negative congruity(G3), negative incongruity(G4). Four groups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each other between the peculiarity of Clothing value and Make-up behavior. Make-up behaviors were different at the peculiarity of minutely divided groups under the standard of physical satisfaction and Make-up attitude, and they showed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value affected to each behavior. So it was testified that Make-up behavior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value of respective persons.

Key Words : Clothing Value, Make-up Behavior, Body Cathexis, Make-up Attitude

I. 서론

최근 들어 대중사회 속에서 인상이나 이미지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구성요소인 신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대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져 화장으로써 자신의 외모가 변화되어 좋은 인상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며,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보다 자신감 있는 당당한 모습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화장은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여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어 자신의 모습을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인 이미지, 개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완할 뿐 아니라 과시적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화장을 한다거나 의복과 장신구를 이용하여 치장하는데 높은 관심을 갖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의복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화장 등을 포함한 토털 패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화장은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현상을 단적으로 반영하여 그 시대의 의복형태와 더불어 다양한 미적 요소를 가지고 변천하는 패션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의복에 비해 변화가 쉽고, 다양한 자기 연출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의 화장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김현희, 유태순, 2002) 그러나 화장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과 화장의 어떤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에 따른 화장에 대한 태도나 행동의 요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William(1952)은 그러한 태도나 행동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개념으로 가치관을 지적하였고, 가치관이 개인의 행동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Hurlock(1976)은 가치관을 개인의 행동과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혹은 속박적인 힘으로 정의하였고, Peter 와 Olson(1987)은 가치관 소비자행동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

* Corresponding author: Su Koung Choi
Tel: 055) 230-1352, Fax: 055) 230-1352
E-mail: csk5257@hanmail.net

적인 욕구와 목표의 인지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Ryan(1966)은 다양한 가치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동일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간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사상에 대해서 유일의 가치보다는 여러 가치를 복합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보았고, 강경자(1986)는 가치관이 의복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혀서 의복과 함께 화장이 토털코디네이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볼 때 같은 맥락에서 화장행동의 요인 또한 규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장에 대한 연구는 화장품의 구매행동(조영우, 1997; 공유미, 1999; 이미정, 2000),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변인(전연숙, 2000; 백경진, 김미영, 2004), 화장에 대한 이미지 지각(윤소영, 2001; 이연희, 2001)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화장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에 따른 총체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정보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에 대한 개념이 화장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성인여성을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의 일치여부에 따라 세분한 후 세분집단의 특성에 따라 화장행동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세분집단간의 의복가치관, 화장행동의 차이를 밝히고 의복가치관과 화장행동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장의 심리를 연구하는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화장과 심리적 측면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소비자의 내적 특성을 파악하여 차별적 마케팅을 적용할 수 있는 뷰티산업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가치관은 학문적인 영역이나 사용범위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개인의 행동양식을 결정해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인간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 때문에 선택가능한 많은 행위 중에서 특정 대상이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Ryan(1966)은 가치관이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동기가 되며 의복행동에서도 가치가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가치관이 의복선택이나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데 있어 의복의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가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Creekmore(1963)는 가치지향성 및 욕구와 의복행동을 연결시켜 연구한 결과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

복의 관리성에 관심이 높았고, 정치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편안함에 관심이 낮았고,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탐험적 가치관이 높은 경우 의복의 실험성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Shama(1980)는 의복의 안락함에 높은 관심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이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특성을 지니며, 의복의 동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가치관은 권력을 얻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경(1982)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유행에, 이론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과시성에 관심이 적은 반면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유행과 과시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경희(1983)는 서울시내 여대생의 의복착용 동기와 가치관을 연구한 결과 착용동기 중 장식성과 과시성은 사회적 가치관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자(1986)는 가치관에 따른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의복선택행동을 비교 검증한 결과 가치관이 높을수록 미국여대생은 의복의 도구적 사용과 외관에 관심이 높고 한국여대생은 정숙성, 실험성, 관리, 동조성의 의복선택행동에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정삼호(1987)는 제주도 여대생의 의복행동과 가치관의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높고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실용성에 관심이 높은 반면 의복의 유행에는 관심이 낮다고 하였다. 박광희(2000)는 18세 이상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치지향집단은 소극적 가치추구형, 적극적 가치추구형, 자기성취형, 사회지향형의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적극적 가치추구형 집단이 유행선도력, 쇼핑의 즐거움, 상표충성도, 수입의류브랜드 구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혜원 외(2005)은 개인지향가치보다 사회지향가치가 의복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진취적인 가치관을 지닌 집단이 의복행동과 의복구매행동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치관은 의류소비시장을 세분화하는 유용한 변수임을 입증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가치관이 의복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토털 패션의 중요부분으로 간주되는 화장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화장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화장에 관한 연구 또한 의류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된다는 점(백경진, 김미경, 2004)에서 가치관과 화장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적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한 방편으로써 사람들은 화장을 하게 되었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

다. 화장이란 그 문화가 지닌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화장만을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행위로 변천해 오고 있다.(이화순, 2002)

大坊과 神山(1996)은 화장이란 얼굴을 중심으로 한 자신있는 부위의 특징을 강조 내지는 변용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화장하는 방법에는 소속된 단체나 사회문화적으로 허용되는 미적 기준이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매력을 타인에게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장은 자신의 기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다움을 강조하거나 평소 때의 자신의 모습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얼굴의 특징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松井과 岩男(1985)은 화장의 심리적 효용으로 직접적인 창조적 행위를 통한 자기효용, 만족감과 대인적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 수행, 자기정서를 통한 자존심의 향상,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가향상에 의한 만족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조기여(1997)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화장행동에서 추구하는 것에 따라 사회적자신감, 즐거움, 피부관리, 자기충족감, 변신의 도구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화장을 보다 자기답게 나타내주는 얼굴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인상 관리방법 혹은 의도적인 표출법이라고 하였다. 권현숙(2001)은 30-4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화장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이 화장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심리적 요인으로는 화장 후 활동성향, 화장의존도, 자기표현욕구, 유행의 4가지 요인으로 나누었으며, 자기표현 욕구가 강하고, 활동성향이 크고, 유행에 대한 민감도와 화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화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선희(2001)는 화장행동에 따라 자기만족형, 자기과시형, 유행지향형, 사회활동형의 네가지 심리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4가지 심리유형 중 현대 여성의 화장행위는 유행지향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결과로 나타나 화장이 개인의 개성보다는 화장품 회사에서 제시하는 미용정보나 유행하는 연예인의 화장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김현희, 유태순(2002)은 화장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요인으로 화장만족도, 동조성, 심미성, 유행성, 흥미성, 예의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흥미성과 예의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백경진, 김미영(2004)은 유행지향성, 대인관계중시, 최소화장 및 피부관리, 관습지향, 자기만족감의 5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화장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어 유행지향 요인이 20대 집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는 요인이라면, 대인관계지향은 40, 50대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지각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화장행동은 신체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장식행동일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인 관점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의사전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행동과 의복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화장행동을 도구, 유행, 관습, 동조, 개성, 과시의 6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대-50대사이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2005년 11월말-12월말 사이에 실시하여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한 것을 제외시킨 43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신체만족도 측정은 Secord 과 Jourard(1953)에 의해 개발된 46개 원 척도를 Mahoney 과 Finch(1976)가 23개의 신체만족도 항목을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서 21개의 항목만을 사용하였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5점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1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신체 차원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화장태도 측정은 선행연구(Gurel & Gurel, 1979; Shim et al, 1991; 강경자, 박정은, 2005)에서 인지, 감정, 의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고려된 의복태도에 관한 문항을 추출한 후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5점 리커트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선정된 화장태도 문항은 1)화장은 나에게 중요하다 2)나는 화장에 관심이 많다 3)화장을 잘 하는 것은 나의 성공에 중요하다 4)화장을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것은 일의 능력 면에서 존경을 받는데 도움을 준다 5)나에 대한 평판은 화장 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5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화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918, .737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의복가치관 척도는 8가지 상대적 의복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작성한 Creekmore(1966)의 'Measure of Eight Clothing Values'(Part I 과 Part II)를 번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art I의 56문항만이 사용되었고, 각 문항은 2가지 가치관을 나타내는 두 항목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두 항목쌍의 상대적인 중요도 정도에 따라 3-0, 2-1, 1-2, 0-3을 평정척도상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이인자, 1978; 정명선, 1984; 강경자, 서영숙, 1989)에 의해 사용된 바 있기 때문에 그 신뢰도와 타당도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화장행동은 선행연구들(고애란, 김양진, 1996; 조기여, 1997; 고애란, 이수경, 1998; 권현숙, 2001; 박선희, 2001; 박정혜, 2002; 전경란, 2002; 백경진, 김미영, 2004; 장남경, 고은주, 2004)에서 도구, 유행, 관습, 동조, 개성, 과시에 관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도구 6문항, 유행 7문항, 관습 7문항, 동조 7문항, 개성 9문항, 과시 8문항으로 총 4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812, .810, .839, .859, .803, .77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A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군집분석, ANOVA분석, Scheffé검증, 적률상관분석,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집단의 유형화

20대 이상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 점수를 기초로 군집분석하여 요인 점수가 낮고 높음에 따라 소비자들을 4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신체만족도 평균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가능하고 전체 표본의 평균은 2.96, 중앙값은 2.95이었다. 각 응답자의 화장태도의 평균 점수는 1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인 5점까지이며 전체 표본의 평균은 3.21, 중앙값은 3.20으로 나타났다.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에 있어 긍정적/부정적 집단으로 나누는 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균과 중앙값을 근거로 하여 신체만족도의 양분점을 3.0, 화장태도의 양분점을 3.2로 결정하였다. 그 다음 어느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누어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점수의 빈도 분포를 조사한 결과 <표 1>에 나타내었다. 양분점을

<표 1>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에 따른 집단의 유형

		신체만족도	
		긍정적	부정적
화 장 태 도	긍정적	긍정적 일치집단 (G1) N=96(22.0%)	긍정적 불일치집단 (G2) N=110(25.2%)
	부정적	부정적 불일치집단 (G4) N=84(19.3%)	부정적 일치집단 (G3) N=146(33.4%)

기준으로 신체만족도와 긍정적 화장태도를 가진 집단은 응답자 중 96명으로 '긍정적 일치집단(G1)'으로 명명하고, 전체의 22.0%를 차지하였다. 신체만족도에는 부정적이지만, 화장태도에서는 긍정적인 집단은 응답자의 110명이며 '긍정적 불일치 집단(G2)'으로 명명하고, 전체의 25.2%를 차지하였다.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 두 요인 모두에서 부정적인 집단은 응답자 중 146명으로 '부정적 일치 집단(G3)'으로 명명하고 전체의 33.4%를 차지하여 4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84명은 신체만족도에는 긍정적이지만 화장태도에서는 부정적인 집단으로 나타나 '부정적 불일치 집단'으로 명명하고 전체의 19.3%로 나타났다. 선행연구(Shim et al, 1991)와 비교하였을 때 평균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신체만족도를 묻는 요인에서는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여 신체에 대해 긍정적 반응보다는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이상적 체형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집단별 의복가치관의 비교

의복가치관의 하위 변인을 <표 2>에서 살펴보면 심미적, 경제적, 정치적, 감각적, 종교적가치관에서 .01수준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0대 이상 성인여성을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에 따라 세분한 후 8가지 가치관 변인의 집단간 득점 평균을 Scheffé법에 의해 사후 비교한 결과 심미적가치관은 긍정적 불일치> 긍정적 일치> 부정적 불일치> 부정적 일치집단 순으로, 경제적가치관은 부정적 일치> 부정적 불일치> 긍정적 불일치> 긍정적 일치집단 순으로, 정치적가치관은 긍정적 일치> 긍정적 불일치> 부정적 불일치> 부정적 일치집단 순으로, 감각적가치관은 부정적 일치> 부정적 불일치> 긍정적 일치> 긍정적 불일치 집단 순으로, 종교적가치관은 부정적 불일치> 부정적 일치> 긍정적 일치> 긍정적 불일치 집단 순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가 모두 높은 긍정적 일치집단은 정치가치관에서, 신체만족도는 부정적이지만 화장태도가

<표 2> 집단별 의복가치관의 비교

	긍정적 일치집단		긍정적 불일치집단		부정적 일치집단		부정적 불일치집단		F
	M	SD	M	SD	M	SD	M	SD	
이론적	1.25	0.27	1.22	0.28	1.24	0.27	1.28	0.27	0.947
심미적	1.75 ^a	0.28	1.76 ^a	0.31	1.65 ^b	0.31	1.66 ^b	0.30	3.817**
경제적	1.49 ^b	0.27	1.54 ^b	0.32	1.66 ^a	0.26	1.56 ^{ab}	0.32	7.256**
정치적	1.38 ^a	0.39	1.35 ^a	0.42	1.15 ^b	0.39	1.17 ^b	0.36	10.079**
사회적	1.37	0.30	1.45	0.24	1.45	0.27	1.45	0.28	2.192
탐구적	1.84	0.38	1.82	0.34	1.74	0.34	1.76	0.35	2.167
감각적	1.57 ^{ab}	0.35	1.52 ^b	0.32	1.67 ^a	0.31	1.65 ^a	0.32	5.276**
종교적	1.35 ^{ab}	0.34	1.33 ^b	0.28	1.45 ^{ab}	0.28	1.46 ^a	0.35	5.192**

** : p < .01

a>b : Scheffé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긍정적인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심미적가치관에서,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가 모두 부정적인 부정적 일치집단은 경제적, 감각적가치관에서, 신체만족도는 긍정적이지만 화장태도가 부정적인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종교적가치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에 상관없이 탐구적가치관과 심미적가치관은 높게 나타난 반면 이론적, 정치적가치관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대학생은 정치적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하며 그 다음으로 이론적가치관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한영숙, 정미혜(2000)의 견해와는 차이를 보여 성별에 따라서 의복가치관의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집단의 가치관 순위는 집단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긍정적 일치집단은 탐구적, 심미적, 감각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이론적가치관 순으로,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탐구적, 심미적, 경제적, 감각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이론적가치관 순으로, 부정적 일치집단은 탐구적, 감각적, 경제적, 심미적, 사회적, 종교적, 이론적, 정치적가치관 순으로,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탐구적, 심미적, 감각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이론적, 정치적가치관 순으로 나타났다

다. 따라서 집단의 특성, 즉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화장태도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관과 그 종류에서 차이를 보여 가치관이 화장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집단별 화장행동의 비교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집단별 화장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6가지 화장행동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들 요인의 집단간 득점 평균을 Scheffé법에 의해 사후 비교한 결과 화장행동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가지 화장행동 중 유행, 동조, 과시행동은 긍정적 일치집단, 긍정적 불일치집단, 부정적 일치집단, 부정적 불일치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화장에 대해 호의적이면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화장에 대해 비호의적인 여성 소비자들보다 유행하는 화장에 관심이 많고, 주위사람들

<표 3> 집단별 화장행동의 비교

	긍정적 일치집단		긍정적 불일치집단		부정적 일치집단		부정적 불일치집단		F
	M	SD	M	SD	M	SD	M	SD	
도구	3.84 ^a	0.57	3.85 ^a	0.52	3.18 ^b	0.66	3.05 ^b	0.76	47.747**
유행	3.53 ^a	0.49	3.48 ^a	0.50	2.79 ^b	0.64	2.69 ^b	0.68	59.356**
관습	3.92 ^a	0.45	3.87 ^a	0.47	2.96 ^b	0.58	3.02 ^b	0.64	104.449**
동조	2.96 ^a	0.79	2.82 ^a	0.66	2.37 ^b	0.58	2.30 ^b	0.65	24.773**
개성	3.71 ^a	0.46	3.59 ^a	0.42	3.10 ^b	0.57	3.13 ^b	0.60	39.147**
과시	3.24 ^a	0.59	3.05 ^a	0.57	2.52 ^b	0.57	2.49 ^b	0.62	43.967**

** : p < .01

a>b : Scheffé 검정에 의한 집단 분류

의 화장행동에 동조하거나 남에게 돋보이기 위한 화장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구는 긍정적 일치집단과 긍정적 불일치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 두 집단은 부정적 불일치집단과 부정적 일치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화장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화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보다 화장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습적, 개성적인 행동도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화장에 대해 호의적인 긍정적 일치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긍정적 불일치집단> 부정적 불일치집단> 부정적 일치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화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신체에 불만족한 사람이 신체에 만족하고 화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화장을 할 때 남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대인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유행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을 표현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화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만족 정도와 화장에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이냐의 태도여하에 따라 구분된 세분집단들은 화장행동의 준거가 다르고 화장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 집단별 의복가치관과 화장행동간의 상관관계

성인여성을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에 따라 세분할 경우 집단별로 의복가치관과 화장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화장행동 하위변인 중 도구와 상관을 보인 가치관은 세분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도구적 사용에서 긍정적 일치집단은 탐구적 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이

<표 4> 집단별 의복가치관과 화장행동 간의 상관관계

화장행동	의복가치관								
	이론적	심미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탐구적	감각적	종교적	
도구	G1	-.260*	.134	.036	.059	.160	.325**	-.092	-.435**
	G2	-.053	.140	-.072	.126	-.225*	.126	-.025	-.165
	G3	-.161	.255**	-.157	.214**	-.159	.285**	-.174*	-.320**
	G4	-.066	.108	-.070	.161	.198	.164	-.164	-.302**
유행	G1	-.026	.024	-.126	.224*	-.023	.018	.009	-.173
	G2	-.126	.211*	-.191*	.253**	-.187	.050	-.049	-.137
	G3	-.139	.200*	-.202*	.310**	-.200*	.295**	-.218**	-.296**
	G4	.085	.092	-.241*	.302**	.092	.297**	-.239*	-.399**
관습	G1	-.151	.189	.093	-.049	-.051	.101	.086	-.212*
	G2	-.178	.200*	-.252**	.236*	-.118	.216*	-.092	-.191*
	G3	-.120	.135	-.090	.086	-.028	.127	-.130	-.072
	G4	-.150	.043	.026	.006	.237*	-.057	-.015	-.019
동조	G1	.119	-.243*	-.002	-.059	.209*	-.388**	.136	.309**
	G2	-.009	-.081	-.070	.203*	-.042	-.112	-.059	.114
	G3	-.136	.033	-.045	.275**	-.082	.084	-.152	-.128
	G4	.040	-.174	.122	-.094	.303**	-.092	-.041	.033
개성	G1	.089	.155	-.111	-.069	-.067	.007	.192	-.172
	G2	.055	.219*	-.129	.069	-.156	-.056	.027	-.093
	G3	-.125	.133	.032	-.035	-.143	.211*	-.010	-.126
	G4	-.067	.000	-.109	.012	.073	.200	.057	-.129
과시	G1	-.078	.173	-.188	.222*	-.118	.054	-.041	-.101
	G2	-.085	.197*	-.178	.290**	-.136	.045	-.122	-.198*
	G3	-.222**	.125	-.147	.410**	-.184*	.163*	-.106	-.299**
	G4	.082	.124	-.251*	.390**	.005	.180	-.276*	-.279*

* : $p < .05$, ** : $p < .01$

G1: 긍정적 일치집단, G2: 긍정적 불일치집단, G3: 부정적 일치집단, G4: 부정적 불일치집단

론적, 종교적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사회적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부정적 일치집단은 심미적, 경제적, 탐구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감각적, 종교적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종교적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긍정적 일치집단의 경우 그들의 신체자아개념을 유지하려는 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의복이 이용되거나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려는 가치관, 의복을 통해서 도덕적인 상징이나 종교적 의미를 나타내려는 가치관이 강하면 화장으로써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가치관에서는 집단에 상관없이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 자신의 이미지나 기분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화장행동을 하는 경우 집단의 특성보다 종교적가치관이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 불일치집단과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사회적가치관에 의해서,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종교적가치관에 의해서 화장을 도구로 사용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일한 행동도 집단의 특성에 따라 내재된 가치관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화장행동 중 유행과 상관을 보인 가치관은 집단 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긍정적 일치집단은 정치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심미적, 정치적 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경제적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부정적 일치집단은 심미적, 정치적, 탐구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경제적, 사회적, 감각적, 종교적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정치적, 탐구적 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경제적, 감각적, 종교적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4집단의 유행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을 살펴보면 집단의 특성에 상관없이 4집단 모두 정치적가치관이 유행행동을 유발하는 공통된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경제적가치관은 긍정적 일치집단을 제외하고 부적 상관을 보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유행에 관심이 적다고 밝힌 김광경(1982)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긍정적 일치집단은 그들 신체에 대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고 화장에 대해 호의적이어서 유행하는 립스틱을 바른다든가 연예인의 화장이나 유행하는 화장을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의복을 이용하여 지위나 지도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화장에 대해 비호의적인 부정적 일치집단과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유의차가 있는 심미적, 사회적가치관을 제외하고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즉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함에 있어 시간이나 돈,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치관, 따뜻함, 시원함, 부드러움, 촉감 등 의복의 착용에

서 편안함을 고려하는 가치관, 의복을 통해서 도덕적인 상징이나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가치관을 지닐수록 유행하는 화장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복을 이용하여 지위나 영향력을 나타내거나 의복의 원료를 실험적 재료로 인식하여 평가하려는 가치관이 강할수록 유행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은 여러 가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유일의 가치보다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밝힌 Ryan(1966)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또한 부정적 일치집단은 이론적가치관을 제외한 의복가치관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상관을 나타내어 다른 집단보다 여러 개의 가치관이 함께 영향을 미쳐 유행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장행동 하위변인 중 관습과 상관을 보인 가치관은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긍정적 일치집단은 종교적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심미적, 정치적, 탐구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경제적, 종교적 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부정적 일치집단은 사회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일치집단은 어떠한 상관도 나타내지 않았다. 화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일치집단과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모두 종교적가치관이 낮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위해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 상관없이 화장태도가 긍정적이고 의복이 이용되거나 만족을 주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가치를 지닌 사람은 관습적인 화장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의 화장행동, 즉 관습에 미치는 가치관의 영향은 차이를 보여 긍정적 일치집단보다 긍정적 불일치집단에서 여러 개의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났다. 즉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경제적, 종교적가치관이 낮고 심미적, 정치적, 탐구적가치관이 높을수록 관습적인 화장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은 배려하는 특성을 지니며, 동조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Sharma(1980)의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의복을 통해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치가 높을수록 관습적인 화장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에 대한 만족정도가 긍정적이지만 화장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집단이므로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단이나 유행, 자기 표현을 추구하기 위한 화장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관습에 의해서 화장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장행동 하위변인 중 동조행동과 상관을 보인 가치관은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긍정적 일치집단은 사회적, 종교적 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심미적, 탐구적가치관

과 부적 상관을, 긍정적 불일치집단과 부정적 일치집단은 정치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사회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긍정적 일치집단과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모두 사회적가치관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두 집단 모두 신체에 만족하는 집단으로 화장태도에 상관없이 신체에 만족하느냐 불만족 하느냐하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의복을 통해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일치집단은 사회적가치관은 물론 종교적 가치관에서도 정적 상관을 보여 의복을 통해서 도덕적인 상징이나 종교적 의미를 나타내는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미적, 탐구적가치관에서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다른 변인과 차이를 보였다. 즉 미를 중시하여 아름다운 옷을 추구하고 높이 평가하려는 가치와 의복의 원료나 재료를 실험적 재료로 평가하려는 가치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과 유사한 동조적인 화장을 하지 않았다. 이는 긍정적 일치집단은 신체에 대한 자아개념이 강하고 화장태도에 긍정적이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적이며 유행하는 화장행동에는 심미적, 탐구적가치관이 높게 작용하지만 동조적인 화장행동에서는 아름다운 옷을 추구하고 높이 평가하거나 의복의 원료를 실험적 재료로 평가하는 가치관이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신체만족도가 부정적이고 화장태도가 긍정적인 긍정적 불일치집단과 신체만족도, 화장태도가 모두 부정적인 부정적 일치집단은 모두 정치적가치관에서 유의적인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화장태도에 관계없이 신체만족도가 부정적이면 의복을 이용하여 지도력이나 영향을 나타내려는 정치적가치관에서 동조적인 화장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조적인 화장행동을 하는 데는 화장태도보다 신체에 만족하느냐 불만족 하느냐하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내재된 가치관의 영향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장행동의 하위변인 중 개성과 상관을 보인 가치관은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심미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부정적 일치집단은 탐구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긍정적 일치집단과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어떤 가치관과도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신체만족도가 부정적이고 화장태도가 긍정적인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미적인 옷을 추구하고 높이 평가하는 가치관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가 모두 부정적인 부정적 일치집단은 의복의 원료나 재료를 실험적 재료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높을수록 독특한 스타일이나 색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는 개성적인 화장행동을 하였다. 대체로 집단의 특성에 관계없이 개성적인 화장행동도 가치관의 영향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개성적인 행동, 즉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원

하고 좋아하는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화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화장행동의 하위변인 중 과시의 상관을 보인 가치관은 집단 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긍정적 일치집단은 정치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심미적, 정치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종교적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부정적 일치집단은 정치적, 탐구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이론적, 사회적, 종교적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정치적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경제적, 감각적, 종교적가치관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4집단의 과시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을 살펴보면 집단의 특성에 상관없이 4집단 모두 정치적 가치관이 과시행동을 나타내는 공통된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의복을 이용하여 지위 또는 지도력을 나타내려는 정치적 가치관은 물론 아름다운 옷을 추구하고 높이 평가하는 심미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의복으로 도덕적인 상징이나 종교적인 의미를 나타내려는 종교적가치관이 낮을수록 화장에서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유명 상표의 값비싼 화장품을 선택하려는 과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화장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두 집단, 즉 부정적 일치집단과 부정적 불일치집단의 화장행동에서 과시를 나타내는 가치관은 여러 개의 가치관이 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단에 상관없이 경제적, 감각적, 종교적가치관은 부정적으로, 심미적, 정치적, 탐구적가치관은 긍정적으로 나타나 눈에 띄고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적인 화장행동은 집단에 따른 특성보다 의복가치관이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가치관과 화장행동 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긍정적 일치집단, 긍정적 불일치집단, 부정적 일치집단, 부정적 불일치집단별로 개인의 가치관 변인과 화장행동 변인간의 정준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의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 일치집단의 경우 .652, .470, .448,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468, 부정적 일치집단은 .555,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659와 500으로 4집단 모두 개인의 가치관과 화장행동 변인은 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일치집단의 경우 나타난 제1정준변량은 의복가치관의 모든 하위변인과 도구 및 동조의 관계를, 제2정준변량은 의복가치관의 모든 하위변인과 도구, 동조, 개성의 관계를, 그리고 제3정준변량은 이론적, 사회적, 감각적가치관과 동조, 개성, 과시의 화장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 불일치집단의 경우 나타난 제1정준변량은 의복가치관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행, 과시의 화장행동과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부정적 일치집단의 경우 나타난 제1정준변량은 종교적가치관을 제외한 가치관의 모든 하위변

<표 5> 집단별 의복가치관과 화장행동 간의 정준상관관계

	G1(N=96)			G2(N=110)		G3(N=146)		G4(N=84)	
	I	II	III	I	I	I	I	II	
의복가치관									
이론적	2.624	3.641	0.492	-9.580	0.570	-0.137	1.974		
심미적	3.034	3.898	0.379	-10.251	0.587	-0.352	1.765		
경제적	2.964	3.065	0.355	-11.393	0.509	-0.642	2.243		
정치적	3.927	4.576	-0.388	-14.051	1.884	0.012	2.009		
사회적	3.204	3.153	0.633	-8.597	0.743	-0.538	2.195		
탐구적	4.427	4.433	0.089	-12.106	0.719	-0.325	2.886		
감각적	3.530	4.502	0.455	-10.201	0.840	-0.438	2.044		
종교적	2.740	3.535	-0.159	-9.066	0.362	-0.736	1.634		
화장행동									
도구	0.797	-0.717	0.362	-0.089	0.541	0.071	0.632		
유행	0.093	0.085	-0.334	0.482	0.044	0.609	0.765		
관습	0.190	0.208	0.128	0.151	-0.323	-0.321	-0.608		
동조	-0.605	-0.450	0.551	-0.101	0.247	-0.689	0.495		
개성	-0.191	0.827	0.721	0.240	-0.749	-0.336	0.524		
과시	-0.136	0.251	-1.005	0.474	0.811	0.784	-1.011		
상관계수	0.652	0.470	0.448	0.468	0.555	0.659	0.500		
아이겐값	0.741	0.283	0.251	0.280	0.444	0.766	0.334		
F-값	2.40	1.74	1.58	1.41	2.05	2.11	1.53		
p	<.0001	0.0073	0.0447	0.0416	<.0001	<.0001	0.0336		

G1: 긍정적 일치, G2: 긍정적 불일치, G3: 부정적 일치, G4: 부정적 불일치

인과 도구, 개성, 과시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부정적 불일치집단의 경우 나타난 제1정준변량은 경제적, 사회적, 감각적, 종교적가치관과 유행, 동조, 과시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2정준변량은 의복가치관의 모든 하위변인과 화장행동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의복가치관과 화장행동의 상관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변인의 관계구조는 긍정적 일치집단, 긍정적 불일치집단, 부정적 일치집단, 부정적 불일치집단의 4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긍정적 일치집단의 경우 의복가치관이 높으면 도구는 중시하나 동조는 중시하지 않으며, 개성과 도구는 중시하나 동조는 중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론적, 사회적, 감각적가치관이 높으면 동조와 개성은 중시하지만 과시는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불일치집단의 경우 의복가치관이 낮으면 유행과 과시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일치집단은 종교적가치관을 제외한 의복가치관이 높으면 도구와 과시는 중시하지만 개성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부정적 불일치집단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감각적, 종교적가치관이 낮으면 유행과 과시는 중요시하지만 도구는 중요시하지 않으며, 의복가치관이

높으면 관습과 과시는 중시하지 않으나 도구, 유행, 동조, 개성은 중요시하였다.

이상에서 각 집단별 화장행동을 보면 하나의 화장행동에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를 기준으로 세분된 집단의 화장행동은 여러 개의 가치관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가치관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각 집단별로 화장행동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20대 이상 성인여성을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를 기준으로 세분한 후 이들 집단의 의복가치관과 화장행동의 차이를 밝히고 개인의 가치관과 화장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

집단의 유형은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 요인들을 군집 분석하여 요인점수가 낮고 높음에 따라 긍정적 일치집단(긍정적 신체만족도/긍정적 화장태도: G1), 긍정적 불일치집단(부정적 신체만족도/긍정적 화장태도: G2), 부정적

일치집단(부정적 신체만족도/부정적 화장태도: G3), 부정적 불일치집단(긍정적 신체만족도/부정적 화장태도: G4)으로 유형화하였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화장태도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4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긍정적 일치집단은 정치적가치관에서, 긍정적 불일치집단은 심미적가치관에서, 부정적 일치집단은 경제적, 감각적가치관에서, 부정적 불일치집단은 종교적가치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에 상관없이 탐구적가치관과 심미적가치관은 높게 나타난 반면 이론적, 정치적 가치관은 낮게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 유행, 동조, 과시, 도구는 긍정적 일치집단> 긍정적 불일치집단> 부정적 일치집단> 부정적 불일치집단의 순으로, 관습, 개성행동은 긍정적 일치집단> 긍정적 불일치집단> 부정적 불일치집단> 부정적 일치집단의 순으로 중시하였다.

화장행동별로 의복가치관과의 상관성이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의 가치관과 화장행동변인 간의 관계의 정도와 방향은 4집단 간에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화장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보면 대체로 신체에 불만족하는 집단이 가치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행을 따르는 화장행동에서는 화장태도가 긍정적인 집단보다 부정적인 집단에서 다양한 가치관이 내재되어 영향을 미쳤고, 특히 정치적가치관이 유행행동을 동기화시키는 공통된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관습적으로 하는 화장행동은 긍정적 불일치집단에서, 동조행동은 긍정적 일치집단에서 여러 개의 가치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개성행동은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과시적 행동은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정적 일치집단에서 다양한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고, 집단에 관계없이 정치적가치관이 과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일치집단의 경우 의복가치관이 높으면 도구는 중시하나 동조는 중시하지 않으며, 개성과 도구는 중시하나 동조는 중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론적, 사회적, 감각적가치관이 높으면 동조와 개성은 중시하지만 과시는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불일치집단의 경우 의복가치관이 낮으면 유행과 과시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일치집단은 종교적가치관을 제외한 의복가치관이 높으면 도구와 과시는 중시하지만 개성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부정적 불일치집단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감각적, 종교적가치관이 낮으면 유행과 과시는 중요시하지만 도구는 중요시하지 않으며, 의복가치관이 높으면 관습과 과시는 중시하지 않으나 도구, 유행, 동조, 개성은 중요시하였다. 이는 가치관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 의복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밝힌 Ryan(1966)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의복가치관은 Allport의 특질론에서 기초된 한 측면으로써 의복행동과 마찬가지로 화장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에 따라 집단을 세분한 결과 집단 특성에 따라 가치관이나 화장행동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써 이들 두 변수는 서로 다른 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10-50대 여성으로 한정하였고,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편의추출을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의복가치관, 화장행동, 신체만족도, 화장태도

참 고 문 헌

- 강경자 (1986)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복선택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 31-42.
- 강경자, 박정은 (2005) 신체만족도·의복태도에 따른 여대생의 충동구매와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992-993.
- 강경자, 서영숙 (1989)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3(1), 1-12.
- 고애란, 이수경 (1998)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7), 931-941.
- 공유미 (1999)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10-2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청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숙 (2001) 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경 (1982) 가치관과 의복의 만족도: 과시성, 유행 및 한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3), 53-62.
- 김경희(1983)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착용 동기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 유태순 (2002) 여고생의 화장행동과 화장품 구매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2), 82-83.
- 박광희 (2000) 소비자의 가치와 의복소요성향과의 관계 연구. 소비자학연구, 11(1), 49-58.
- 박선희 (2001) 현대여성의 화장행위와 성격유형과의 관계성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혜 (2002) 추구의복이미지와 의복태도에 따른 색조화장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원, 김현, 임숙자 (2005) 남녀 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의복행동 및 의복구매행동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 103-113.

- 백경진, 김미경 (2004) 화장에 관한 기존연구 유형의 분석. *복식문화연구*, 12(1), 182-198.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 (2000) 우리나라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화장품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실 (2000) 남성의 성 지향 및 심리적 특성에 따른 의복행동과 외모장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희 (2001)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각에 미치는 영향-유행예측색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자 (1978) 주부들의 의상가치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연구보고*, 2, 63-94.
- 장남경, 고은주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특성에 따른 의복행동, 구매평가기준, 정보원에 대한 연구. *복식*, 54(7), 15-26.
-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연숙 (2000) 여성의 화장에 대한 의식행태와 관련요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선 (1984) 남녀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정숙성과 의복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85-93.
- 정삼호 (1987) 제주도 여대생의 의복행동과 가치관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 261-267.
- 조기여 (1997) 자기효능감, 퍼스널 스페이스, 의복근접도, 화장근접도와 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우 (1997) 화장품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 정미혜 (2000) 대학생의 가치관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4), 602-610.
- 大坊都夫, 神山進 (1996)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北大路書房.
- 岩男壽美子, 松井豊 (1985) 化粧の心理的效用(Ⅲ)-化粧後の心理的變化-. *日本社會心理學會*, 25卷, 128-129.
- Cash, TF, Dawson, K, David, P, Bowen, M, and Galumbeck, C (1989) Effect of Cosmetics Use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of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3), 353-355.
- Creekmore AM (1963) Clothing Behavior & their Relationship to General Values &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Creekmore AM (1966)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Michigan State University.
- Gurel, LM, Gurel, L (1979) Clothing Interest: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5), 274-282.
- Hurlock, EB (1976)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 New York: Amo Press.
- Mahoney, ER, Finch, MD (1976) The Dimensionality of Body-cathexis. *Journal of Psychology*, .92(2), 277-279.
- Peter, JP, Olson, JC (1987) Consumer Behavior: Marketing Strategy Perspectives. Irwin.
- Ryan, M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ecord, PF, Jourard SM (1953) The Appraisal of Body-cathexis: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 Sharma, RS (1980) Clothing Behavior, personality and values: A correlational study. *Psychological Studies*, 25, 137-142.
- Shim, S, Kotsiopulus, A, Knoll, DS (1991)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9(3), 42-44.
- William, RM (1952) American Society. New York, Alfred Aknopt.

(2006. 12. 14 접수; 2007. 03. 30 채택)